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위로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7월7일(주) 주일예배 시 성찬예식 거행, ALCOE V 후원의 날로 함께

대한민국 성인들은 '춘궁기'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그 시절을 회상하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우리는 궁핍하였고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의 고통에서 건져내시어 경제부흥과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가장 풍성한 복음 전파의 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민족 누구에게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이 이심을 보여주셨다.

교회 절기상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로 지킴에 된다. 우리가 맞은 금년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절기로서 지키는 날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는 다음 주일예배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추감사 헌금도 드리게 된다. 교회학교에서는 특별순서도 준비한다.

또한 교회는 맥추감절인 이날을 아시아 로잔대회 후원의 날로 함께 정하여 8월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 로잔 대회를 후원하기 위한 후원헌금을 작성케 된다.

매년 김치세미나를 성들의 특별 헌금으로 준비해온 우리교회는 올해도 총1천2백구좌(1구좌:10만원)를 목표로 모금 중이며 현재 뜻 있는 성도와 후원회 운영위원 및 실행위원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특별헌금 봉투에 작정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된다.

민박과 각종 봉사로서 이번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동안 접수하였던 민박 및 자원봉사 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오늘까지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로비에 비치된함에 넣으면 된다.

고등부 헌신 예배 및

2002 홍해작전 승전감사 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우리 교회 고등부가 참된 위로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는 헌신예배를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드린다. 1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를 보내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 받고 승리하도록 기도한다. 또한 지난 25일 끝난 2002 홍해작전을 은혜 중에 승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 감사예배도 함께 드리게 된다.

본당 대청소

-7월1일 오전 8시-

우리 교회는 입당 후 1년이 넘도록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그리고 각종행사들로 끊임 받은 본당을 대청소하기로 하였다. 우리교회의 본당은 원목으로 제작된 장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이번 청소는 본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를 끝내고 난 뒤 식당에서 청소를 함께 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함께 청소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7월1일 오전 8시까지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로 나오면 된다.

몽골 단기선교팀을 위한 기도

선교위원회는 2002년 8월5일 몽골로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의 명단과 기도제목을 발표하였다.

대원 명단: 이규정, 이태운, 이영희, 이용자, 김사무엘, 이병생, 곽숙, 전용순, 최소희, 김영주, 이남성, 이양철, 최영열, 오환실, 이자역, 최미아, 김대영, 최요섭, 최 읊, 강민정, 김성실, 박운경, 박연주, 임영여, 최수정, 오동은, 하영인, 인요셉 등 이상 28명 이다.

- 기도제목 (1) · 몽골과 몽골인을 사랑하며, 이방쪽속을 마음에 품도록
· 선교지를 직접 관찰, 분석하고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돕도록
· 현지 선교 상황과 기도제목을 제출함으로 참된 동반자로 서도록

새 교역자도 한분 청빙

그 동안 5,6교구와 장년 4,5부를 담당하던 고정선 목사가 6월30일 부로 사임하고 대전 한남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교회는 임시당회를 열고 그 후임으로 이용식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회는 새로 오시는 교역자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한다. 한편 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는 정용돈 목사와 고정선 목사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사임 인사를 하게 된다. 새로 오시는 이용식 목사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식 목사
- 1962년10월10일 생
- 청주대학교 법과 대학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수료
-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 졸업 (MDiv)
- 장로회 신학대 대학원(상담학) 수료
- 2000년5월 서울 강남노회 목사안수
- 임마누엘교회 부목사
- 정경숙 사모와 1남1녀

2002 농촌 전도대 조직

지난주 금년도 농촌전도대를 파송할 지역을 발표한 전도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금주에 계속 이어서 2002 농촌전도대 조직을 발표하였다.

전도위원회에 따른 금년도 농촌전도대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또한 금년 농촌 봉사대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 직
지 도 : 이성득 목사
대 장 : 왕경래 장로
부대장 : 최중시 장로
총 무 : 조정식 집사
회 계 : 오광환 집사

구분	과장
전도분과	서춘식 집사
교육분과	신용식 집사
친영분과	권윤경 집사
행사분과	이동만 집사
홍보분과	김규태 집사
의료분과	이상호 집사
마용분과	김명숙 권사
취사분과	이영숙 권사
지역분과	장영일 집사

이시에서 강해

주여 강림하소서

(이사야 64장 1-7절)



이종운 목사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그가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권능으로 임재하시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도 임하시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 예전에 권능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임하소서

선지자는 이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경이적으로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는 '하늘을 가르고, 산들이 진동하고'(1절), '불이 타서 물이 끓는다'(2절)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의 광경을 연상하게 합니다(출 19:16-20).

"뽀뽀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서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욥 22:14).

선지자는 하나님께 뽀뽀한 구름을 가르고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의 길이 열린 것과 같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한 것과 같습니다(출 19:18).

"불이 섯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2절).

불 앞에 섯이나 물이 저항하지 못하고 타듯이 열방은 주님께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여호와 의 임재로 두려워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폭발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방의 강이나 물을 끓이는 유행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경외의 예표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이 때는 그의 친구들 뿐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3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겨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평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선한 대접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귀로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4-5절).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 분만 구원자로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을 흔들 듯이 진멸하실 터인데 이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대하실 자는,

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덕을 세우며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경건으로 흘러가 결국 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믿고 덕을 쌓으며 박해 중에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시 16:4).

진리를 파수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진리를 반역하는 일은 더 고생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는 소망을 가지며 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②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5절).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면 비록 괴롭게 느껴져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이며 은혜입니다. 의의 길은 광명의 길이며(렘 5:8-9), 평강의 길입니다(시 37:6-7).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③ 주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5절).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그가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이사야의 애가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멀리 다

를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① 일반적으로 도덕이 타락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6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쓸모 없는 것이고 인생은 잎사귀같이 시들게 마련입니다. 잎사귀가 시들었다고 나무 전체가 쓸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든 것은 추합니다. 불가피한 사양길에서 서서히 시드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든 인생에 비유합니다. 죄악의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들듯 꽃잎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② 신앙이 냉담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7절).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소홀하게 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고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모두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거룩한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는 인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에서 온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름다음은 추한 모습으로 변하고, 신앙고백은 낙엽처럼 시들며, 재산도 사라지고, 바람같이 죄악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7절).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인간을 보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소멸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시어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하나님에게 임계 해달라고 간구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앙과 도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공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작전 결산]

월드컵보다 더 뜨거웠던 홍해작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을 열었다...!!!-

올해도 우리 서울교회는 험한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를 건너 너스리의 주님을 만나 승전기를 불렀다. 지난 10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6월이면 우리 서울교회는 20일간 이어지는 새벽기도의 대장정을 통해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그때마다 홍해작전 승전의 뜨거운 감사의 기도과 벽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특히 올해는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로 모두의 관심이 온통 축구에만 쏠려 실제 월드컵 기간 중에 치루어진 국내의 굵적굵직한 많은 행사들이 참패를 면치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시험의 물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승전하였기에 그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 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쳤던 2002년 홍해작전을 결산한다.

2002년 홍해작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외부의 여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강한 결속력과 믿음을 재확인하여 주었으며 이로 인해 오는 8월의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ALCOE V)를 비롯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각종 행사들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일 것이다.

이번 홍해작전은 당초 목표를 뛰어 넘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으로 인해 월드컵으로만 집중되는 모두의 엄청난 관심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유세장에서조차 청중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선거 운동원들만을 세워 놓은 채 행해지는 후보들의 목선 연설은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우리 대표팀의 오후 경기가 있던 날은 아예 각급 학교와 회사는 수업과 업무를 중단하였고, 상점들은 철수하였으며 예정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부러부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었으니 월드컵의 열기에 둘러 이번 홍해작전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던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번 홍해작전기간의 참여 인원은 연인원 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더더욱 이 같은 성도들의 참여는 성도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낸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는 기도응답의 기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누기 위해 그들 스스로 교회가

위치한 강남일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대의 성도들도 거리를 마다 않고 이른 새벽 찬 공기를 헤치고 씌 없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서울교회 특유의 교회문화라고 일컬어질 정도



인 각종 교회행사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탄탄한 성도들간의 네트워크와 조직이라는 형태로 응집되어 이것에서 파생되는 강력한 힘이 구제와 선교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교회를 생동감 있는 활기찬 공동체로 만들고, 비단 이번의 홍해작전의 승전뿐 아니라 그간의 성공적인 교회 행사를 이야기 할 때 마다 외부의 부러운 시선과 함께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주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내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우리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 분명 커다란 성과이다.

이번 홍해작전의 소중한 성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여성들과 노인들이 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벽기도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는 달리 홍해작전에 참여하는 이들은 부부 동반한 30~50대들이 대부분이고 어린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 중, 고등부 학생들과 대학, 청년부의 젊은이들은 물론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눈에 띈다. 그야말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새벽기도 운동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새벽 잠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새벽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전보다 더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바른 신앙을 위해 성경공부에 힘쓰는 모습,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구 하던 모습 등, 험난했던 대장정의 끝자락에서 우리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았고 열싸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운 느낌을 받았다. 올해에도 홍해작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열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일과 6월 25일 새벽 온 교회에는 홍해작전 승전의 벽찬 감격이 넘쳐 나고 있었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이 배어 나고 있었다. 이런 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올해 홍해작전의 승전으로 서울교회는 내실 있고 성숙한 교회로서 책임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값진 성과였고 우리로서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2002년 홍해작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만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8월의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ALCOE V)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와 후원의 끈을 놓을 수 없으며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된 우리의 가능성과 결집된 힘을 어떻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vanitas vanitatum omnia vanita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세창 (대학부·12교구)

스무 살. 모든 사고와 시각을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둔화시켜버리는 입시지옥을 간신히 뚫고, 부모님의 따스한 품을 벗어나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내가 생각하던 것 훨씬 이상이었다.

대학 시절 내내, 죽은 자들의 흔적을 뒤적이며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 처음의 충격은 그저 시간이 거둬지는 만큼 둔감해져 버렸을 뿐이었다. 인간이 있었던 곳은 어디나 똑같은 지배와 똑같은 희생이 있었고, 한 명이 일어서기 위해 수 백 명이 쓰러져 가야 했다. 전도자의 고백에 대한 스무 살의 두려움은, 이제 그저 인간사에 대한 영원한 공식처럼 약간의 쓸쓸함으로, 그러나 담담히 수용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 많은 철학적 질문들 역시 그들의 그 빈곤한 생을 지탱시켜 나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그리고 전도자의 말처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수고로움에 지나지 않았다. 비참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위로라니!! 홍해작전 기간동안 새벽 시간에 기다리는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요리문답이라는 것도 약간 의아했지만, 요리문답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좀 더 의아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소요리문답을 공부한 상태라 요리문답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나마 친숙했지만, 요리문답 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녹아 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날,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그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신과 감사를 주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과, 그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입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자유케 되는 성도의 감사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해방시키기 위해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를 주저치 않으셨던 하나님 공의와 자비의 그 놀라운 공존과, 값으로 사신 백성을 친히 경영·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위로라'는 단어 이상의 희망과 감사였다. 더욱이 '영원한 신비'라는 삼위 일체설이나 음부설에 대한 이중운 목사님의 간결하지만 체계적인 신학적 설명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수확이었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짧고 빠르게 지나갔던 시간이었다. 129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모두 살피지 못하는 아쉬움은 컸지만,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살거나 죽거나 나에게 단 하나의 위로는 바로 몸과 영혼이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

세상의 좀 더 많은 이들이 이 열린 비밀을 공유했으면, 그래서 그들의 삶 역시 풍성한 자유와 감사로 넘쳐났으면, 그리하여 비참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었으면.

나의 젊음에 새삼 새로운 목표가 생긴 셈이다.

Deus est enim qui operatur in vobis e velle et perficere pro bona voluntate('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정윤돈 목사

1999년 6월6일 새벽 홍해작전 이 시작되던 날부터 2002년 6월 30일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지난 3년을 넘치는 은혜와 감당 못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노구의 불편한 몸으로 김밥을 마시던 권사님들로부터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착한 주님의 종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은 실로 저의 평생에 잊지 못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쉬임없이 서울교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 지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쉬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당신의 선포된 말씀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위임목사님을 통해 철저한 목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깊이 근심하는 목양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대면케 해주신 냉철함, 진리를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호함, 목사와 무릇 주의 이름으로 발걸음 받는 종들을 사랑하시는 정중함, 학자적인 신중함, 숨은 사랑보다 더 귀한 통책, 그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지혜와 축복의 말씀은 목사 초년생의 마음에 때로는 열정, 때로는 눈물,

서울교회를 떠나면서

때로는 깊은 탄식과 회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 제게 허락하신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한 일은 지극히 적으나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무익한 종은 사명을 못다하고 떠나지만 항상 서울교회를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우리 다시 만날 때 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고경선 목사



1999년 6월 6일 홍해작전 첫 날 서울교회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30일 네 번째 홍해작전의 승전보고를 마치고 서울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 길을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대전의 한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 다. 올 때는 셋으로 왔으나, 이제는 다섯으로 갑니다. 올 때는 욕심 많은 목사였으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포기하므로 승리 하는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새벽에 깊은 잠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을 몸에 익혔습니다. 의무감으로 심방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자 세가 불분명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종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척이나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패인 곳이 메워지고, 상처가 아무는 고귀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드넓은 답십리 사택의 봄꽃 공연을 향기로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감당하는 사역만큼 건강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5, 6, 7, 8 교구 식구들, 청년부, 순례자, 치야마이 단기선교, 장년부 그리고 일일이 셀 수 없는 여러분들과의 시간은 눈물나게 고귀한 마음속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디딤돌로 삼아 주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교역자 회의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잔피부리는 목사가 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 기에 생명을 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이은옥 권사(3교구)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음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4강을 향한 스페인과의 대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떠올리며 나도 이렇게 기도했다. '16강도 8강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번까지만입니다.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우리 선수들을 붙잡아 주소서.'

내가 언제부터 월드컵에 관심을 쏟고 매 축구경기마다 가슴 졸이며 보고있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모든 국민이 열광하고 있었다. 거리마다 쏟아져 나온 붉은 색의 물결을 보며 누구나 한마음이 되었다. 기적 같은 4강에 올라섰을 때 온 국민의 환호와 기쁨은 다시는 가져보지 못할 것 같은 벽한 것이었다. 준결승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결승전에 꼭 간다. 한국이 이긴다. 요코하마에서 만나자 등.. 나는 4강에 갔을 때 '이제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다시 한번 승리를 꿈꾸고 있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혈투를 벌였던 이탈리아전에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퇴장 당하는 선수를 보면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

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화를 자주 내는 이탈리아 감독을 보면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미 축구의 명가라 불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짐을 싸서 떠났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를 생각해 되었다.

히딩크 감독은 몸값이 비싼 유럽선수들이 개인기만 발휘하려고 하는데 비해 우리선수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된 승전보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단비와 같은 선물이었다.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온 국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좋은 기별은 뼈를 운택하게 하느니라"의 말씀처럼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이제 월드컵은 끝나가고 있다. 온 국민이 하나된 그 사랑과 열정을 모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되는 또 다른 기적을 꿈꾸어 본다.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장한 우리의 태극전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다.

"점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니라"

등정

- 이종윤牧사는 7월2일 총회 공천위원회에 참여한다.
■ 정윤돈 목사(3,4교구)는 미국 칼빈 신학교로 유학차, 고경선 목사(5,6교구)는 대전 한남 중앙교회 시무차 각 각 오늘부로 우리교회를 사임한다.
■ 김재중 집사 김유경 집사 가정 야자수, 양란 외 14종 교회계 단 장식
■ 2002 홍해작전 승전 감사 떡 제공: 피택집사 일동

-금주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스테반회 주관으로 피택 집사와 연합으로 9시 부터 드리게 된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기다린다.

◎ 금주의 식사제공: 김금준 집사이연주 집사가장 (부모님 정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백추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2.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중에 준비되고 시행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시간, and content. Rows include weekly services (I, II, III parts), church services (찬양, 수요일, 금요일, 새벽), and a meeting (예배 및 집회).

교회약도

